

‘영웅’ 물러나고 만화에서 소설로

미국 만화

글_허선

흔히 미국 만화하면 영웅 시리즈물, 현란한 액션 위주의 만화풍 등 미국 나름대로의 스타일 만화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만화시장에도 서서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그동안 슈퍼맨, X맨, 스파이더맨 등 영웅들만 들끓던 만화 시장이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며 만화시장은 물론 도서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이러한 발걸음에 맞춰 만화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대형출판사들의 움직임은 그동안 인디작가에 머물렀던 작가들을 스타작가로 변모시키고 있다. 여기에 만화만 출판하던 출판사들도 만화뿐 아니라 만화를 소재로 한 소설을 선보이고 있어, 이제 만화는 만화라는 한정된 장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서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 변화하고 있는 미국 만화시장

영웅물 일색의 미국 만화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전문 만화가들은 근육질의 영웅들을 그려내기에 바빴다. 하지만 요즘 신세대 작가들은 다르다. 그들은 만화란 다양한 소재로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화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서시장을 겨냥해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즉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래픽 소설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크리스 웨어, 린다 베리 그리고 댄 크로우와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로렌 웨인스타인, 제프 브라운 등과 같은 젊은 작가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풍자적인 판타지에서부터 가까이서 관찰된 기억들까지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 인디작가들의 만화주류시장 진출

미국 만화시장은 인디출판사나 자가출판을 통해 문학적 명망을 쌓아온 작가들의 영입이 한창이다. 그동안 만화시장을 등한시했던 뉴욕의 대형출판사들이 속속 만화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이들로부터의 연이은 인디작가의 스카우트는 만화시장의 스타작가 탄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설가들에게나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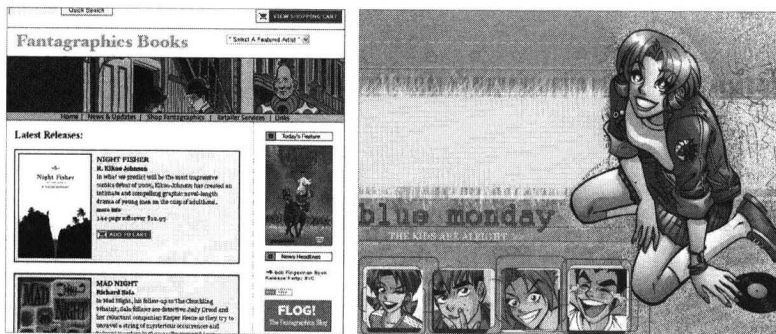
백만 달러가 넘는 계약금과 전국적인 프로모션과 배급이 만화작가들에게도 서서히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만화시장의 움직임을 향한에선 1990년대의 음악산업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주요 레코드 회사들이 인디밴드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너도나도 서둘러 인디밴드들과 계약하던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인디작가의 대형출판사로의 이동이 줄을 잇고 있다. 망가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인디작가 치나 클러스턴은 그동안 포틀랜드에 기반을 둔 오니 프레스에서 십대 소녀물 《우울한 월요일 Blue Monday》과 《스쿠터 소녀 Scooter Girl》를 출간했다. 이번에 신작 《여왕벌 Queen Bee》은 최근 출범한 스킵클래스틱의 그래픽 소설 출판사인 그래픽스에서 출판되었다. 펭귄그룹의 팝문화 중심의 출판사 챔버레인 브라더스는 전 탐펠트 출판사 저자였던 매트 메이든의 《새 책 이야기를 전하는 99가지 방법 99 Ways to Tella Story》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가들의 대이동이 가장 많은 출판사는 시애틀 기반의 판타그래픽스다. 이곳으로부터 뉴욕의 판테온 출판사로 옮겨온 작가들은 《유령세계 Ghost World》의 저자 앤 크로우스, 《지미 코리건 Jimmy Corrigan》의 저자 크리스 웨어, 《극치의 최신식 도서관 Acme Novelty Library》의 저자 제시카 에이벌 등이다.

대부분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디작가들의 대이동을 반기는 추세다. 가장 많은 작가들이 뉴욕 판테온 출판사로 옮긴 판타그래픽스도 작가들의 이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가들이 좀더 큰 도서시장의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만화시장의 활성화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 소설로 만나는 만화 주인공들

만화 주인공들을 소재로 한 소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원조를 따지자면 1940년대에 소설로 나온 슈퍼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출판시장에서 그래픽 소설이 부상하면서 만화 출판업자들은 그들의 저작권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그림 없는 책들을 출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C코믹스는 영화로도 나온



시애틀에 기반을 둔 판타그래픽스. 이곳에서 활동한 많은 인디작가들이 뉴욕 판테온출판사로 이동했다. (좌) 오니프레스에서 출간된 인디작가 차나 클러스틴의 《블루 먼데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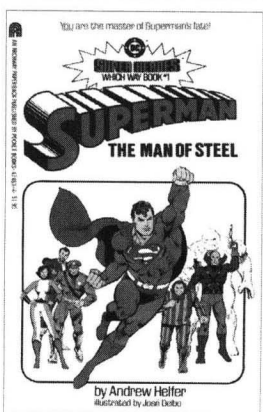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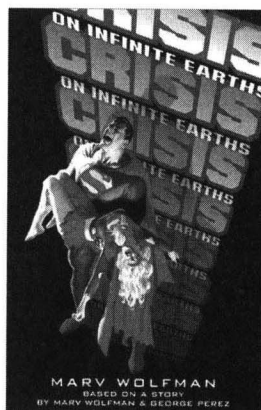
《헬브레이저》를 공포소설 작가인 존 설리를 통해 소설화했으며, 《배트맨》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데니 오넬리는 배트맨 영화를 소설화했다. 또한 슈퍼맨이 처음 등장하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쓰인 《이것이 슈퍼맨이다! It's Superman》가 곧 출간예정이다. 여기에 스토리 작가로 유명한 닐 게이먼을 앞세워 만화의 소설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아이부스 출판사는 크리스찬 고세트의 《붉은 별 Red Stars》과 마블 울프먼의 '지구상의 끝없는 위기 Crisis on Infinite Earths' 시리즈 등을 소설로 출간했다.

밴담 출판사에서는 조금 색다른 시도를 했다. 배트맨 코믹 스토리 《아무도 없는 곳 No Man's Land》을 소설로 쓰기도 했던 소설가 그레그 루카가 오니 프레스에서 출간된 스파이 추리만화 시리즈 '여왕과 나라 Queen & Country' 를 배경으로 한 소설 《신사의 게임 Gentleman's Game》의 작업을 맡았다. 그는 만화를 그대로 소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설을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써내려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소설이 만화의 시리즈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만화를 토대로 하는 소설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 소설 자체가 만화 없이 만화 캐릭터만을 가지고 시리즈물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만화의 소설화는 소설 독자들이 만화에 빠지는 경우보다 만화 독자들이 소설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대변해 준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듯 마블 코믹스는 만화의 배경소설을 출판하는 마블 프레스를 런칭하고 마크 세라시니의 《늑대인간》을 출간했다. 일본 망가를 출판하는 코믹스윈도 '오네가이 선생님' 시리즈물을 소설로 출간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만화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편향적인 만화시장에서 벗어나 유럽만화를 접할 수 있었고 요즘엔 만화란 '그림을 통해 하는 이야기'라 정의하고,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삶의 모습을 담은 만화를 보여주는 '새만화책'과 같은 출판사도 생겨났다. 우리네 만화출판시장도 자생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만화시장처럼 차츰 도서시장에서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조 <http://www.fantagraphics.com/>



미국 만화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스파이더맨, X맨, 슈퍼맨 등과 같은 영웅 일색에서 다양한 소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만화가 소설로 다시 만들어져 단행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 www.galleryjinsun.com 을 운영하고 있다.